

지금

이 시각

비영리 월간아카이브
발행 _ pigheadlab

2022. 8 네 번째

오종원

온라인 전시, 메타버스와 NFT
등에 대한 단상

이은우

2022년 7월 어느 날. 짧은 메모

석민정

우리 결혼할 수 있을까_4

이채연

도화

이 안

그렇게 너와 나는 “우리”라는
빨간실로 이어져

8월의 게스트

윤보라

결국, 보내지 못한 감정적인
내용증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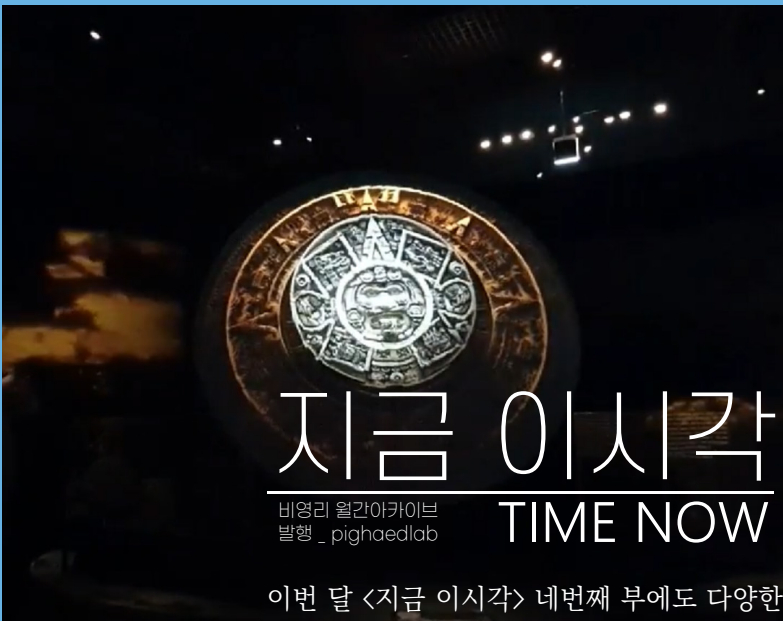
Pighead Lab



앞, 뒷 표지 :

2022년 5월 3일부터 8월 28일까지 진행되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아스텍아, 태양을 움직인 사람들> 전시 중 메인 작업. 원형 석판 복제품에 프로젝션 맵핑을 사용하여, 애니메이션을 통해 상당히 역동적으로 아스텍아의 신화를 설명한다.

사진_ 오종원



이번 달 <지금 이시각> 네번째 부에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모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아카이브의 방향성을 두고 그것을 어떻게 유지하는가에 대해 고민이 많았는데 점점 더 다채로움을 찾아가는 것 같아 기획자의 입장에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필진들에 대해 소개하는 것에 조심스러움이 있었는데, 7월달부터 참여중인 이안 필진의 경우 기고하는 글과 사진들은 무속에 근거한 과거와 현재를 잇는 문화적 사료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개인적으로 무척이나 감사한 마음이며, 보시는 분들도 이에 대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월의 게스트는 윤보라 작가입니다. 저도 유튜브 정도로 들었던 상황을 실제로 겪은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과 함께 이러한 이야기들도 공유되어 조심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시각>은 늘 새로운 이야기, 소식을 환영하고 있으며 방향성에 대한 제시도 언제나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매달 중순까지 다음달의 이야기를 받고, 월말 월초 편집을 거쳐 게시됩니다. 현재는 온라인을 통해 게시의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언제나 기회가 되면 배포의 형식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신규&게스트



이 채 연

창작가 /

관심 받고 싶어 하는 주부

도화

‘끼’가 있는 사람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끼’는 섹슈얼한 매력, 여러 이성과의 사귀는 능력을 말한다. 아름다운 외모로 이성을 끄는 능력이 아닌, 이성의 마음과 몸을 쉽게 열리게 하고, 얻을 수 있는 능력이다.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타고난 성정이고 미묘한 느낌이다.

이 ‘끼’가 있는 사람과... 없는 혹은 적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

나의 부모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

아빠는 참 '끼'가 많았다. 그 끼 때문에.....그에 따른 사건과 사고가 많았다.

엄마는 보통? 아니 중하? 하? 아니 모르겠다. 엄마의 이런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해서는. 한때 누렸던 ‘라떼는 말이야’ 식의 추억이라든지, 리즈시절의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내 기준으로 별다른 에피소드가 없는 것 같아서 별점 2개정도.

아무튼 두 분의 이성관계 스타일은 많이 달랐다.

아빠는 자신의 ‘끼’의 욕망이 저지른 일로 주변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다. 나도 상처받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았다. 이런 일에 대해서 어버버하게 대응하는 엄마를 보면 가슴 아프기도 했지만, 어떤 때는 둔해 보이기도 하고 무기력해 보이기도 했다.

사람은 왜 이렇게 다른 것일까?

진짜 이 '끼'라는 것은 본인이 주체할 수 없고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사춘기시절부터 많이 했다.

부부사이에 그 ‘끼’의 차이가 많이 난다면, 상대적으로 없는 쪽은 억울한 느낌 든다. “누구는 못 놀아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줄 아냐?” 이런 말이 나오게 된다. 그런데도 ‘끼’가 없는 사람은 가만히 있게 된다.

도화1, 19x21.5cm, 장지에 분채, 2021



엄마 아빠의 '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복숭아를 그렸다. 복숭아의 색은 분홍빛으로 홍조 띤 얼굴 같고, 형태는 하트모양 같기도 하고 엉덩이 비슷하기도 하다. 거기다 향긋하고 맛도 좋다. 가까이하고 싶은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과일이다. 사주에서도 이성을 매혹시켜서 자신의 주위에 머물게 하는 힘의 의미를 가진 '도화살'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이 복숭아 그림은 '복을 부르는 민화'나 주술의 '힘이 깃든 부적' 처럼 영원하는 마음의 힘이 있기를 바라면서 그려졌다.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사랑의 매력이 생길 거예요. 믿어보세요!

복숭아가 고삐 풀린 엉덩이 같다. 엄마가 덩실덩실 활기를 찾았으면 좋겠다.

도화2, 19x24cm, 장지에 분채, 2021



도화3, 19x21.5cm, 장지에 분채,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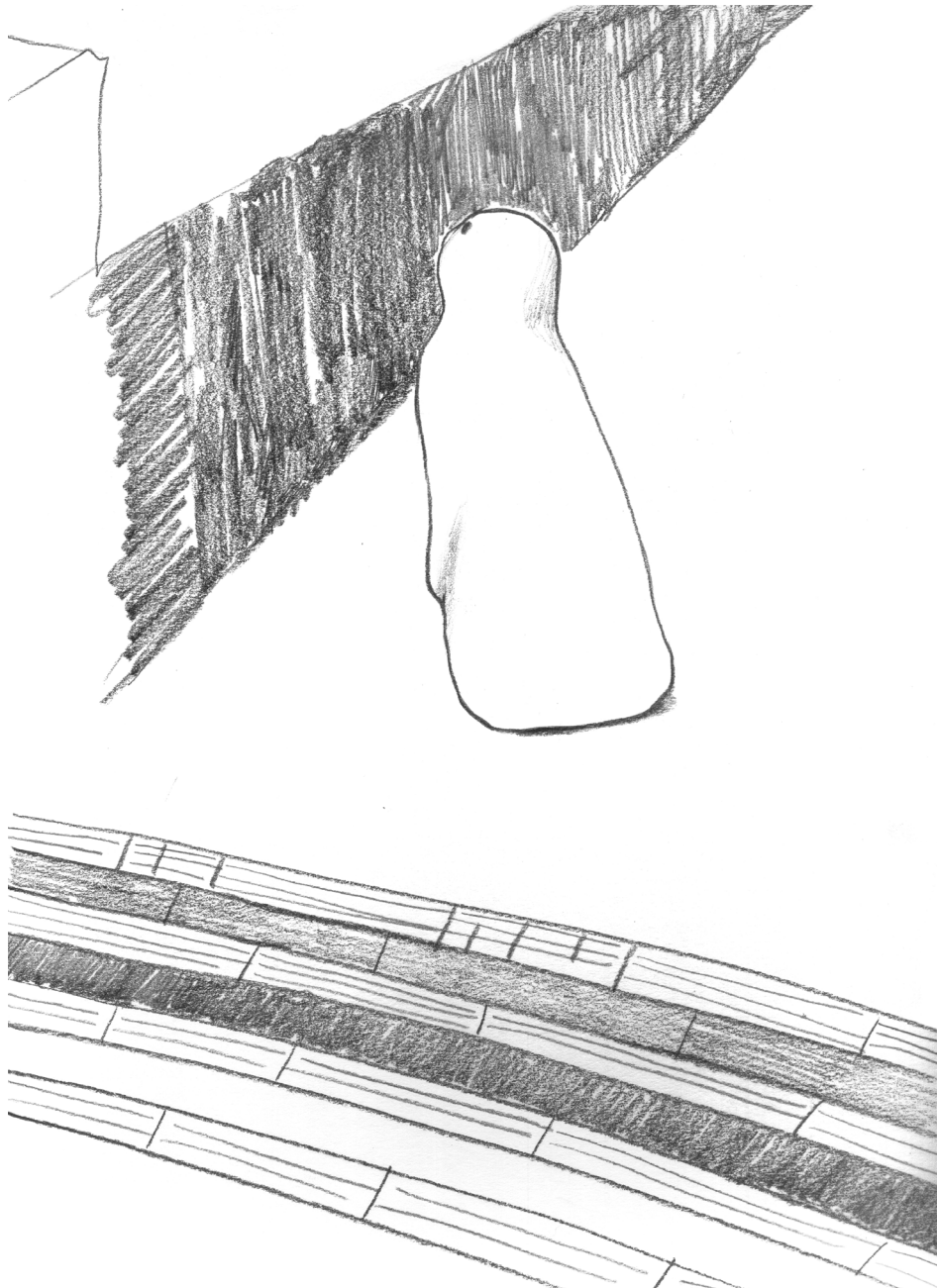




2022년 7월 어느 날. 짧은 메모

이 은 우
그림 그리는 사람 /
본업과 부업 사이 어딘가에
서 표류 중

뭔가 있지_pencil drawing



초록 식물들이 바람에 흔들리거나
여기 있으면 안될 것 같이 생긴 친구들이 뺨뺨 보이면
그게 그렇게 눈에 들어온다.

주변부1_pen drawing



예전에는 사람들의 모습이 더 먼저 보였는데 요즘은 좀처럼 잘 보이지 않는다.
 혼자 있는 듯 하면서 주변부와 애매하게 같이 어울려 있는,
 다른 방식으로 숨쉬고 있는 모습들을 보며 내가 감정이입하는 것 같다.

주변부2_pen drawing



주변부3(흔들흔들)_pen drawing



주변부4_pen drawing



신규&게스트



이 안

원형아티스트 /

누가 뭐래도 세계에서 쫓
잘나가는 만신

그렇게 너와 나는 “우리”라는 빨간실로 이어져

막바지, 삼주차가 다된 마지막 쪽지 시험이었을거야.

도건이가 삼촌인 나를 보고 씨익 웃으며 너는, 그 쪽지시험을 머릿속에 외워버렸단
듯이 일필휘지로 마지막 시험을 오분도 걸리지 않고 나에게 냈었어,

아래와 같은글을 말야

"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도건 이라는 "나"가 한가운데 있어. 그리고
옆에 나 아닌 너라는 존재들이 원을 그리고 서 있다. 그들이 모여 가족이 되고 친구
가 되고 또 선생님, 이안 삼촌, 엄마 친구, 아빠 친구 등 "너" 와 "내"가 모여 우리가
되고 각각의 우리들은 또 각자의 삶의 방식이 맞는 우리끼리 모인다. 그렇지 않을
시엔 다른 말씨 다른 생김대로 먼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 같은 이들은 자
연스럽게 우리와는 다르다는 전제 아래 "분리"를 시도한다. 분리된 존재들. 그게 바
로 "타자(他者)"가 되어버린다고 했었어."

삼촌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싶은 말을 쭉 써놓고는 고고하게 자는 척하는 모습에 탄
성을 지르지 않을 수 없었지, 처음 공부하자고 했을 때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참
어려웠는데 이젠 우리가 서로 가려는 고지마저 보이니 말이야.

첫 수업 날, 삼촌과 도건이, 그러니까 "한 무리의 존재들이 "너와 나"란 관계에서 우
리가 되어가는 것을 주제로 공부하자"라는 말에 즉시 들려오는 도 건의 반문의 목소
리. 네? ? ? 하는 반문의 목소리, 상세하게 어떻게 공부를 하고 무엇을 공부할 것
이며 진도는 이렇다고 말할 수 없음에 너의 말을 받아치며 딱 한 달만 공부해보아!
라고 몰아붙인 게 미안했지만, 같이 버텨준 우리 도건이에게 무량 감사할 뿐이다,
자랑스러움을 금할 수단다. 너의 어머니는 네가 쓴 쪽지시험 외우고 다니시더라 너
처럼^^

한없이 쉬울 영문법을 가지고 나 너 우리 그들을 가르치는 그것을 더 넘어서고자 하
는 삼촌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편견으로부터 그래, 네
가 견고히 쌓아 올린 사상 말고 어디선가 주워들어 만들어진 편견으로 너의 삶에서

선택권이 명확하지 않게 살게 되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에 대부분 수업시간엔 온갖 다 식은땀을 흘렸던 것 같아.

그 당시, 자꾸 숙제가 많아져서 미안했고 수업이 길어져서 그랬지만 우리 처음에는 어색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하나 했지만 각자 나의, 이야기, 내 주변의 이야기, 지금 여기의 일을 도로는 하면서 어려움보다는 도전이가 현대 역사 경제 등등의 실물적 이야기, 개인적 인간관계에서의 편견과 창피함의 관계 등등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덕분에 나는 너와 함께 발을 맞추기로 했어.

나는 너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고 ‘함께. 알아가는 자’로 너랑 수업하겠다는 말에 부담을 느꼈으면서도 더 많은 걸 알아보고 물어보고 서로 찾는 시간은 참 다시는 만나기 힘든 시간일지도 모르겠다 싶었지만 그럼 에도 불구하고 삼촌은 저 타자화의 정의 아래 "너와 나, 우리,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낸 편견과 편향의 독소"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필요악인지에 대해 이 수업을 하는 내내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좀 더 구체적으로

타자화된 불쌍한 내 엄마의 블루스

우리는 먼저 다 떠나서 도전이와 내가 우리로 편입되지 못해 속상했던 적들을 삼촌이 말해줘서 나의 어머니는 만신이 된 아들을 누구에게도 말 못 하는 냉가슴으로 나 한번 엄마 지인들에게 소개 못 한 나의 엄마 이야기, 이것에 대해 말했어 한 편으로 인해 갔지만 그렇게 나란 존재가 대상화와 차별화 당해도 그래도 엄마는 늦었다 해도 그래도 나를 지켜 주지 않았을까. 고민해 봤단다,

가족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자 진심으로 우리가 그때부터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 우리 이야기는 이 주제에 의해 탄력을 받는 것 같아. 너의 가족 이야기는 패스! 너랑 약속해서 쓰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부분은 도전이가 너 주변의 친구 관계에서도 말을 해줘서 예를 들어가며 "우리"의 영역으로서의 그 상황을 세밀하게 이야기하며 나 아닌 너의 마음을 알아보려는 시도와 질문이 주는 진지함을 가지고 너 주변 이들을 그렇게 하나하나 고려해 가는 네가 참 대견했어.

세상과 그곳에 살아가는 우리가 갖는 우리를 위한 차이를 받아들이고 이해해 가려는 그 시간이 정말 도전이에겐 해바라기 꽃 같더구나.

너와 내가 타자 화환 가까운 사례를 찾다가 맥도날드 문이 너무 무거워서 통행이 힘들어 먹는 게 힘들다는 어느 우리의 이야기를 검색하면서, 우리는 원하든 원치 치든 제일 먼저 얘기했던 보행장애인 등으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에 자연스럽게 그들을 타자화했던 것 같아.

그래, 우선 늘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고 우리는 상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잖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걸. 하지만 도건아 선천적 장애보다 88%가 후천적 장애로 말미암아 장애인이 되었는데. 도건아 내가 막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너도, 나도 모두 우리는 미래의 예비 장애 후보자들인 거야. 근데 바로 눈앞에서 다르다는 이유로 만약 휠체어를 운행하는 이들에게 그 두꺼운 맥도날드 출입문을 열어주지 못하면 우리는 참 슬픈 세상에 사는 걸지도 몰라. 이뿐만이겠니.

도건과 도건의 주위 전부와와의 만남, 타자와 우리의 만남의 경계를 넘어!

우리 도건이도 알다시피, 삼촌의 일은 만신이기에 죽음을 보잖아. 삼촌, 일상에서는 죽은 자들이 타자화가 되어 가야 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게 가장 힘들어, 야. 죽고 서럽고 배고파서 굶한다는 소리 듣고 찾아왔는데 귀신 취급받아야 했던 힘없고 소외된 영혼에 대해 말해주었던 같아. 쉽게 말하면 도건이 생일잔치에 저기 이름 모르는 나라 사람들, 수백 명이 너를 위해 차려놓은 음식을 먹겠다고 이걸 공포이지. 하지만 어떤 형식과 절차를. 만들어 내면서 그들을 편하게 대접하며 우리 도건이의 생일 또한 빛나게 해야 한다면 그건 정말 타자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우리가 되는 길일 질도 모르겠다는 말을 툭 던져서 또 그 말에 내가 수긍이 되어서 참 좋았단다,

이제 우리 주변을 지나 이 지구에 일어나고 있는 것에서 일어나는 타자화와 우리가 서로 되지 못해 힘 들어가는 것들 찾아보기로 했고 우리 각자 어떻게 이것들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우리가 과연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까에 대해 고민하자고 했어, 그러면서 더 이야기를 확장하며

저기 먼 땅에서 지금 일어나는 우리지만 우리가 되지 못하는 일들을 찾아보자고 했던 거 기억나니.

먼 곳의 이야기도 아냐,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고. 얼마 전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의 급습으로 체제가 전복되고 멸절된 여자들의 인권은 유린당하고 사람들은 조용히 죽어가고 탈출할 기회마저 찾지 못해서 비행기 엔진에 불타 죽고 미안마는 다시 겨울잠을 자며 이제는 거의 이 년이 다 돼가면서 군부독재는 일반인들을 죽이고 있다고 하더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명분 없는 전쟁에서 일반 시민들이 죽어 나가고, 내 바로 옆에 잠들고 있던 그 이쁜 아이가 눈뜨고 나니 한 줌 가루가 되었다는 뉴스에, 도건아 너와 나는 말을 잃을 수밖에 없을 거 같아. 우리 잊지 타자화시키며 우리의 일로 만들지 않는 자가 되지 말자는 약속을 한 게 잘 한가 싶을 정도로 너무 가슴 아프고 냉혹한 현실에 말문을 닫게 되네.

얼마 전에 너에게 전화하며 곧 공부한 미안마 양민학살이 말로만이지 그럴지는 못

할 거야 했었는데, 일 년 만에 벌써 처형식을 진행했다고 하는 뉴스를 들었어. 우리는 누가 먼저 시작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권력으로 국민을 침윤 도구로 써먹는 이 세상에 메커니즘에 대해 얘기하려는 게 정말 잘하는 걸까 싶었어. 이 세상 참 “짤”도 없다.

드디어 까지 한 수업을 맞출 시간이 돌아왔고, 우리를 각자 분야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하자고 말해준 나는 “뒷전”이라는 곳을 잘하면 잘할수록 좋으면서 많은 소외된 타자들과 파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 시 시간을 이용하기로 했지. 너는 지금까지 저리한 건 한국에 볼 수 있게 너의 부모님과 우리 주변의 어른들 그리고 친구들에게 벤 다이어그램 타자와의 등등 공부한 그것들을 설명하기로 했었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몸이 우리의 정신과 영혼이 살아 있어서 삼촌을 찾아오는 영혼들에 삼촌에게 당신과는 그렇게 "우리"라고 하고 위로해 줘도, 막상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였던 그들을 만나게 하고 또 만남을 접사를 보는 중에 이루어 나가기도 하는데, 항상 영혼들은 타자화가 되어 있더라,

그런데도 일이 잘 풀려서 서로 만나서 싶어 했던 산 자와 죽은 자의 영혼들이 만나면 드디어 "같은 조건이 아니어도 우리가 한 존재였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들이 되는 그때만큼은 삼촌은 삶의 의미마저 빛나고 있더라고.



삼촌이 수업하면서 계속해서 하던, 했던 말들 네가 인지를 했는지 않았는지는 몰라도,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든, 죽음이라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회분에 심어진 시든 꽃일 거라고 말해준 내 말 기억나니?

생명이 다해서 시든 게, 아니더라고, 잊히어 시든 거더라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서.

당신들이 나보다 죽어갔음을 인지하고, 당신의 죽음에 애도를 다 하고, 우리가 진심으로 산 자와 죽은 자를 넘어 영혼과 영혼과의 진심 어린 마음 씬씬이로 나도 그들이고 그들도 우리가 되는 우리는 그렇게 서로 빨간 실을 이어 갈 수 있다는 걸 결국 말해주고 싶었나 봐

삼촌은 이 뒷전 상으로 우리가 한 공부의 피날레로 너와 함께하고 싶었어.

저번에 삼촌이 세계에서 켈 잘나기는 만신이라고 커밍아웃을 하며 너에게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지. 그때 이런 말 한 적 있었어.

굿이나 기도의 주 대상이 되는 신들에게 바치는 전물상 그러니까. 주요기도 상과 함께 차려지는 상이 있다고 말했던 것 기억나지? 그래 앞에 차린 상은 주인공들의 제물이려면 뒤에는 주인공이 될 수 없지만 지금 주인공이 되지 못해 저 상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서러워 말고 속상해 말고 당신도 주된 목적의 의식과 기도와 굿이 끝나서 마지막으로 주인공 해줄게, 하고 차려진 상. 뒷전 상.

바로 이 뒷전 상을 꼭 차려서, 우리를 빛나게 해줄 혹은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승자의 신과 함께, 단지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존재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혹은 승자가 아니어도 좋아, 슬프고 아프고 많고 속상하고 타자화되어 배제된 이들을 다 불러 모아 놀아 놓고 풀어 주는 굿과 기도에서의 마지막 거리, 뒷전 거리.

그런데도 삼촌은 꼭 뒷전 상에. 참 많은 정성을 쏟으려 해. 여기 사진과 같이 원형의 꽃비를 겨울 바다에서 오시는 분들 위해 종지로 설유화를 만들고 꽃고, 가지꽃과 목련꽃 그리고 죽은 이들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 노란색 실제 꽃으로 그들의 집을 만들고 저기 물 건너오시는 영혼들을 저 성냥개비로 은유화하고 편히 오시라고 상엿소리를 불러 드리며 몸에 실리는 영혼들은 또 실어주고 그렇게. 함께. 서로의 마음에 빨간 실을 이어 갔어

저 키에다 종지로 만든 가지꽃, 목련꽃으로 치장하고 자동차라고 생각하는 영혼이 있다면 꽃자동차가 되고. 그것을 테슬라라고 생각해 주면 너무 좋고, 혹은 죽을 때 탔던 꽃상여라고 생각해 주어도 좋고, 아니어도 괜찮고. 유니콘도 좋겠네.

도전아. 어쨌든 육지에서 “꽃차”를 타고 이렇게 와 주는 당신들이 정말 고마워서 처

음 본 영혼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부른다고 다 오지는 않잖아, 먼저 나는 가사를 외워, 그래 문서라고 하더라, 하지만 나는 상엿소리 형식의 문서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즉흥곡에 더 가까울 거야. 왜냐면 곳을 해보면 한 번도 같은 상황이 일어난 적이 없어서 대사를 외우지 않고 신이 주시는 대로, 내 가슴이 울리는 대로, 나오는 말 그대로 나오는 소리 대로만 하기로 다짐했거든.

만가형식의 소리로 그들에게 다가갔다.

오늘 이 영혼들을 데리고 온 또 다른 영혼들은 어쩌면 "사자"라고 불릴 수도 있겠다. 무당들 조차도 만신들조차도 죽은 사람 데려가는 게 무슨 죄라고 이렇게 무서워하실까, 그게 일인데, 나는 무속인들이 사재 삼성 즉, 사잣님을 무서워하며 '사자 놈' 이라고 부른 그 몇몇 이들이 정말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

죽음을 맞이하는 건 우리는 정말 아무도 모르잖아. 검은 샷갯을 쓰고 검은 도포를 입은 이들은 전설의 고향에서 처음 등장한 것이지 진짜 사자는 아니어서 도건아, 그건 우리의 상상이야. 내가 본 사자는 일반 영혼과 별반 다름이 없었어. 마치 마중 나온 친구같이, 혹은 자기도 급한 일이 있는데 귀찮아하는 어떤 사람들같이 그렇게 오더라고. 그래도 여기 영혼들 데리고 또 오셨네. 오늘 이 곳의 주인공이 되지 못한 당신들이 난 그저 잠시 한숨·한 번이라도 펴고, 쉬고 가길 바랐어, 또 사잣님네 찾아드리고 노래 부르고 같이 울며 우리 그들과 나는 빨간 실을 이었어.

저기 아프리카 땅을 건너 꽃차 타고 오시고 저기 시베리아 대륙을 건너 이리라 오세요, 저 크림 반도를 건너 헤매지 마시고 여기 잠깐 따뜻한 곳에 오셔서 손잡고 온 따님들과 함께 이국의 음식도 아주 많이 드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변식진언(조금만 있어도 음식이 이 진언을 읽음으로써 무수히 많아지게 하는 진언) 멈추지 않으리다. 이제는 당신들에게 총을 겨누던가요? 지금이 2022년이 맞나요? 점점 잊히는 당신들 때문에 마음이 몹시 아프네요. 미얀마와 태국의 그 국경 사이에서 죽음의 탈출에 성공 못 한 가족들이여 슬퍼 마요 우리 다시 행복해져요. 단지 몸만 없는 거잖아요. 여기 이름 모을 꾸리 띠에(캄보디아어로 제사장) 당신들을 위해 이렇게 노래 부르리다.

도건아. 네가 언젠가 네 마음의 상실이든, 사랑의 상실이든 그 무엇이 너를 어둡게 만든다면 삼촌과 함께 편지에서 주고받았던 이 영혼들을 굳이 생각하지는 마.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라도 우리는 빨간 실로 충분히 이어낼 수 있고 어쩌면 이어져 있는데 우리가 잊고 살고 있을지 모를 뿐이니까. 그래서 "너와 나였던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된다 도건아..."

저 먼저 간 이들, 뒷전에서 상을 받아먹는 이들, 먼저 간 그들과 살아 있음/ 죽어있음 사이에서 안타깝게 타자가 되어버린 그들도 한때는 사랑 가뿐히 받아 보았던 그들이었고, 이 자 또한 인간 (Being human)이기에 마땅히 그것만으로도 우리와 다

를 바 없는 존재였다. “그들은 우리였어.”

도건아 자꾸 말아 걸어 영혼들이, “나를 잊지 말아요.”라고 혼자 온 저 아이 눈빛에. 저 말이. 들려온다. “나를 잊지 말아요.” 그리고 그들을 보내고 헛헛한 마음에 멀리 있는 길 바라보는데 내 귓가에 나의. 신께서 말씀해 주셨어. " 아가, 그 누구도 모두도 잊지 않게 될 것이니 괜찮아.... "하시는데 나는 잠긴 목소리를 가다듬고 그렇게 흥얼거리며 불러 줬어.

이리 와서/ 즐거웠나 /이제제야/ 한 풀리나/ 가요가요/ 어서 가요,/ 오던 길로/ 다시 가요,/ 많이 먹고/ 많이 불러,/ 젖은 음식/ 먹고 가고/ 마른 음식/ 지고 가서/ 어서어서/ 가요 가요/ 연이 되어 /또 오세요./ 왜 왔는지 /잊지 말고/ 맺힌 한을/ 다 풀 수랴/ 처음 왔던/ 마음 잊지 말고/ 다시 마음 /단단히 붙잡고/ 돌아가요/ 하나하나 /풀어봐요/



거기서도 /살아가야/ 풀어가요./ 이고 지고/ 가던 음식/ 쌓아놓고 /말려 놓고/ 나눠
먹고/, 수비 청계/ 되지 말고/ 이름 석 자/ 잊혀도/ 이 만신이/ 당신 이름/ 모른대도/
당신 존재/ 어찌 내사/ 잊으리까./ 가요 /어서 가요./
다음기약/하시게나/ 빨간 줄을/ 밀당기면/ 우리 모두/ 함께 일세/

도건아, 우리 이렇게 저기 어디에선가 소리 없이 사라져 가는. 이들도 있다는 걸 잊
지 말고 우리 빨가실 그들과 함께 이어가 볼까.

네가 뒷전을 진행하는. 동안 그려온 너의 가족과 너 친구 그리고 그. 주변에 무수히
많은 이들이 웃으며 빨간 실로 혹은 크레파스로 이어져 있어서 참 맘이 좋았어. 삼
촌 일 뒷전 다 보내고 우리 도건이 그림 보고 꼭 앉아 줬을 때 그 든든함이 가슴을
묵직히 누른다.







오 종 원

문화예술인력 /
피그헤드랩 운영

온라인 전시, 메타버스와 NFT 등에 대한 단상

근래의 전시라는 것에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활용되고 있다. 이미 SNS에 광고를 게시하는 것은 물론, 조금 규모가 있는 곳이라면 VR과 AR, 맵핑 기술 등을 통해 볼거리를 제작하여 전시에 삽입하는 것도 낯선 풍경만은 아니다. 이제 웬만한 큰 행사에는 홈페이지만 접속해도 다양한 것들을 구경할 수 있다. 지난 2020년 부산 및 광주 비엔날레의 경우에도 코로나 시국과 엇물리며 온라인으로 전시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제 콘텐츠 상에서 관객의 동선까지 구축하여 간단하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온라인 전시라는 개념은 뜬금없이 등장한 것은 아니어서, 이미 오래 전부터 주요 박물관과 미술관들은 전시마다 이런 섹션들을 구성해 놓고 있다. 홍보를 함에 있어서도 홈페이지에 전시 작품만 딱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작품이 설치된 전시 구성을 보여주는 것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이는 전시 인테리어 또한 전시의 한 맥락으로 인식되어지는 추세 덕일테다. 어느정도 전시장의 형태를 가상으로 구축해 놓거나 혹은 꼭 실제 전시장과 똑같지 않아도 나름의 개성들을 살린 온라인 플랫폼들을 볼 수 있다. 또 한편으로 요즘 사람들은 어디 방문하기 전에 미리 핸드폰으로 접속해보고 그러지 않는가. 그러다 보니 준비를 안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초기에는 360도 카메라를 활용하여 로드맵 형식으로 온라인 전시가 제작된 적은 있었고 잠깐 인기를 끈 적도 있었지만(마치 네이버 지도 앱에서 로드뷰 시점을 킨 것처럼), 근래에는 아예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그 안에서 전시장을 제작하는 것이 주류로 자리잡았다. 하긴 기존의 로드맵 방식은 너무 단순하고 또 너무 접근성이 쉽기도 하였다.

아무튼 그렇게 온라인 콘텐츠가 보편화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다양한 생각을 하던 도중, 한동안 비슷한 방향의 인터뷰 및 질문들을 받게 되었다. 대체로 요즘의 추세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언급은 빠지지 않았고, 그게 요즘 인기는 인기구나 싶었다. 나는 관련된 영역, 가령 NFT나 메타버스와 같은 플랫폼에 대해 전문적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창작자이자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이로써, 또 미디어 플랫폼을 향유하는 유저의(그 성장기를 지켜 보기도 한) 입장으로 답변을 하였던 것 같다. 근래 기억에 남는 얘기를 바탕으로 요즘의 생각들을 메모해본다.

Q. 근래 문화예술에는 다양한 온라인 매체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예술가로서 대답을 해야 할지 기획자로 대답을 해야 할지 고민되는 지점이 있다. 완전 반대되는 입장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 우선 내가 생계를 유지하는 지점, 즉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그저 기술력이 정말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간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여담으로 나는 한동안 전시나 행사 등의 비디오를 찍어주는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 그때는 몇 개의 채널을 하나의 동영상으로 조립하고 효과만 없어주는 것도 일종의 기술이라 생각했는데, 요즘은 웬만한 사람들도 다 영상촬영 및 편집을 할 줄 알고 또 그것을 돕는 프로그램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아쉬움이 남고는 한다. 기술이란 것이 그런 것 같다.

그런 지점에서 근래에는 코딩과 3D 모델링 등을 조금만 배우면 어렵지 않은 기술이 되었으며 이는 하드웨어의 보급이 제일 큰 영향이었을 것이다. 스마트폰과 같은 개인의 정보통신 및 처리기기가 고성능으로, 또 모든 이가 가질 수 있게 보급되면서 이에 덧붙여 콘텐츠들도 어마어마하게 생산되기 시작하였다. 타블렛이 보급되면서 일러스트를 그리는 사람들이 늘었고,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홈비디오 정도는 가볍게 만든다. 단순 해당 기술만 아니라 그 기술을 쓰기 위해 학습하거나 협조해주는 프로그램들도 등장하였다. 기술의 상향평준화 시대이고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 지금의 내 입장처럼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속하여 기획하고 추진하는 입장에서 무궁무진한 발전의 가능성을 느끼기도 한다. 예산만 있다면 해당 기술력을 갖춘 기술자들과 콘텐츠 구축 플랫폼을 상대적으로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자들은 대체로 비슷한 생각을 할 것이다. 이야기를 제작하고 이것을 전달하며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입장에서, 더 이상 구전이나 활자로만 할 것이 아닌 더 많은 방법들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이야기는 다들 할 수 있는 뻔한 소리이기도 할 것이고.....

Q. 그렇다면 반대쪽 입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A. 미디어가 엄청나게 발달한 것이 전통적 예술에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끼친다고 생각한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대중에게 대화거리와 트렌드를 제공하는 역할은 문화예술,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 매체의 역할이었을 것이다. 아마 대체 불가능한 플랫폼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 들어 기술의 발달로 인해 그 주도권을 뺏기었다고 본다. 문명의 발달에 있어 플랫폼이란 콘텐츠를 담기 위한 그릇의 비중이 더 컸으나, 정보화의 시대에는 콘텐츠가 플랫폼에 맞춰가는 경향이 더 많아지는 것 같다. 어렵게 설명할 것 없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보는 시대에, 세상의 많은 콘텐츠들도 스마트폰에 맞춰 나오는 것을 생각해봐라.

내 개인의 관심 주제이기도 한데 정보화의 발달은 곧 문화 소비에 익숙한 세대를 만들어 내었다. 문화를 접하고 감상하고 평가 및 전파를 하는, 일종의 소비순환이 상당히 빨라진 것이다. 그것은 꼭 BTS와 같은 스타들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다. 당장 유튜브만 들어도 온갖 행위예술을 하는 사람이 가득하며 SNS를 통해 인플루언서들이 활동하는 것도 볼 수 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얼마만큼의 새로운 인물들, 그리고 이슈거리들이 생기는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미 텔레비전과 타블로이드가 있는 세상에서도 매일이 새로운 소식들로 가득했는데 스마트폰은 이를 어마어마하게 증가시킨다. 심지어 그런 정보에 피로를 느끼는 경우도 많지 않은가. 지금 세대가 가진 문화의 소비속도는 점점 거대하게, 빠르게, 그리고 포악하게 변하고 있다. 나는 그것을 관심의 메뚜기라는 표현으로 상상하고는 하는데, 특히 자본주의 시장과 엮어진 문화소비는 이제는 무엇이든 소화할 수 있는 지경이 아닐까 싶다. TV에, 스마트폰에, 인터넷에, 광고판에, 보이는 모든 것에서 쏟아져 나오는 정보들을 생각해보면 이제는 더 이상 인류가 정보를 습득하러 행위를 하지 않아도 정보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을 느낀다.

나의 경우 언젠가 유튜브로 아이언맨 변신 동영상을 몇 편 보았더니, 어느 순간 내 유튜브 창에는 관련 영상들로 가득 차 있어서 이제는 어벤저스, 슈퍼맨과 배트맨, 마블의 역사와 현재의 이슈까지 온갖 관련 영상들로 채워져 있다. 그리고 심지어 재미있고 직관적이며 나름의 감동과 의미를 전달하기도 한다. 그런 콘텐츠들이 사방에 널렸는데, 미술관까지 가야만 겨우 보게 되는 어렵고 이해 못할 몸짓의 퍼포머를 비교함에 있어 대중의 소요가 어떨지는 뻔한 것이다. 이는 NFT의 등장만 봐도 마찬가지이다.

Q. 그렇다면 NFT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황설명 - 근 몇 년 NFT의 등장으로 관련 플랫폼 마켓들이 탄생하였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코인으로 매매가 진행되었고, 어떤 예술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해당 플랫폼에 맞춰 게시하거나 혹은 아예 그런 플랫폼들에 맞춰 창작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근래 일부 전시공간들은 NFT로 제작된 이미지들을 전시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여기에는 매매를 바탕으로 한다.

A. 단순하게, NFT는 소유의 개념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전부일 수도 있다. 예술을 배우다 보면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술을 자본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듣고는 한다. 뭘 돈을 밝히는 예술을 하지 말라라고, 세상에도 널리 알려진 이야기 아닌가. 그럼에도 NFT의 등장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단순하며 강력했다. 특히나 그것이 코인과 같은 대체 비용과 거래될 때는 상당히 먼 미래의 SF영화처럼 느껴 지기도 하였다. 물론 내가 코인이란 것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지점이 있어서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치가 형성되고 만들어

지는 것들이 표현 그대로 비눗방울 위에 방울들이 몽글거리는 것처럼 느껴지더라. 그 세상에서 가치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소장권과 권리의 목적만을 위한 매체로 존재할 뿐이다.

한편으로 자본을 추구하는 것은 어떤 지점에서는 순수한 미덕으로 인정받고 있기도 하다. 안타깝게도 자본주의적 예술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너무나도 순수하기에, 예술이 가끔씩 신비주의처럼 보이게끔 하는 가식이 다소 벗겨진 듯한 느낌이다. 기존에는 아는 사람만 알았다면 이제는 세상의 사람들이 전부다 알게 된 낯은 스캔들 같은 것.

Q. 메타버스 전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A. 우리 세대에게 메타버스는 사실 무지 익숙한 플랫폼이다. 추억의 버디버디, 프리첼(인터뷰어는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다)에서 익명의 ID로 온라인 활동을 하던 것도 메타버스라면 메타버스일 수 있겠다. 더욱이 바람의 나라나 리니지, 메이플스토리 같은 온라인게임을 해보았다면 메타버스는 정말 익숙한 플랫폼이며, 막 새롭고 파격적으로 등장한 어떤 매체는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지극히 단순한 생각으로 시작하면, 기존의 문화예술이 전통적으로 가진 방식과 특징에 대해 메타버스가 대체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3D공간 안에 피카소의 ‘별이 빛나는 밤에’를 넣어봤자 그것을 온전히 대체 하기는 커녕, 감상함에 있어도 실제로 그것을 보는 환경까지 구현하는 것은 아직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미술적 용어로 마띠에르라고 하는데, 그런 질감과 그것의 물리적인 감각까지 온전히 흉내내는 것은 영화 매트릭스의 배경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할 것이다.

하다못해 내가 어느 전시장에 가서 마음에 드는 작품을 핸드폰 카메라로 찍은 것을 떠올려 볼 수 있다. 그 사진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거나 내가 SNS에 올릴 수는 있겠지만 그 사진을 보면서 진품을 보듯 감탄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저 재현된 기억의 재생일 뿐일 것이다. 지금도 무수한 오페라나 뮤지컬의 녹화 동영상들이 제작되고 있지만 여태 그것이 어떤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전시나 공연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다들 알고 있을 내용이다. 실제의 작품 감상이란 그것이 어떤 재질이 어떻게 빛을 반사하며 주변 환경의 변화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러한 상황과 물리적인 시간 자체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메타버스가 효율이 없다는 것은 아닌 것이, 그것에 맞춰 제작된 콘텐츠에는 확실한 효과를 보장하는 것 같다. 그것은 그것 나름의 매력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 아마 내 세대부터 대부분 비슷할 텐데 일찍이 어렸을 때부터 온라인 게임(채팅이라던가)을 접하게 되고 그 가상의 세계 안에서 다양한 경험, 희로애락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는 이미 메타버스의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며 자라왔다고 생각한다. 딱 그런 플랫폼에 맞는 그런 콘텐츠가 앞으로 주류로 자리 잡는 일은 가능할 것이다. 지금도 온라인 채팅이나 소개팅 어플 같은 것들을 보다 보면 이미 메타버시기기 때문에 가능한 궁극적 재미들을 충분히 뽑아내고 있지 않는가.

정리하자면 전통적 예술은 오감을 활용하기에 그것을 완벽히 재현해내지 않는 이상, 당장 근미래에서는 메타버스라는 방식이 전통적 예술의 지향점에선 어떤 훌륭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Q. 온라인 콘텐츠와 문화예술에 대해 정리하자면

A. 어차피 이제는 그 인기도 조금 사그라지는 것 같은데, 사실 누구도 이것을 진정성 있게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일찍이 인터넷 세계와 온라인 문화를 즐겼던 세대에게는 워낙 익숙한 플랫폼이고, 기성 세대에게는 무엇인가 쫓아야 할 젊은 트렌드처럼 여겨졌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남는 것은 사업적 관점 뿐이지 그것이 여전히 어떤 플랫폼으로서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거나 낯선 미지의 무엇인가처럼 여겨지는 것도 아니다. 이제 문화행사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마련하게 되는 비즈니스 플랫폼 정도가 적당하다 생각한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런 것 하나가 새롭게 등장하기만 해도 미술관(시각예술)은 한동안 출렁거린다. SNS를 보다 보면(나야 동종 계열과 친구를 맺고 있으니), 조금 오버해서 메타버스를 할 줄 알아야 무엇인가 새로운 트렌드를 따라잡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 온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한편으로 그 정도로 미술계라는 것이 가볍고 작고 무력하다는 것을 간간히 느낀다.

국립중앙박물관 이견희 컬렉션 중





석민정
삼십대/
문화예술인/
교습소운영

우리 결혼할 수 있을까? _4

Ep. 12 싸움은 이렇게 시작된다..

송리단길인지 먼리단길인지 생전 가지도 않는 땡리단길에 가서 스키야키를 시켰다.
오래 기다린 스키야키가 나왔을때
나는 문득 창 밖에 힙한 사람이 눈에 띄었다.
나는 그 애에게 그동안 품고 있던 고민과 진솔한 얘기를 갑자기 하고 싶어졌다.
스키야키 육수는 이제야 따뜻해졌다.

“오빠 나는 있잖아 항상 힙한 사람들 있지, 인싸들이 너무 부러웠어. 그래서 나는 항상 힙한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될 수 없어서 너무 불행했어. 그런데 이제 조금 어른이 됐나봐. 사람마다 각자의 힙함이 있는거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가장 나 다울 때 비로소 가장 힙한 모습이 나오는 거더라구. 그래서 이제 남들을 보며 부러워하거나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 나답게 살기로 했어.”

스키야키는 이제 보글보글 끓는다.
그 애는 아무 말 없이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다.
나는 무안해져서 입을 열었다.

“어때 오빠? 좋은 애기지?”
“음 쏘쏘”

나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다.
“아니 오빠는 왜 말을 그렇게해? 왜 항상 부정적인 표현이야?”
그 애는 순간 당황한다.
사실 ‘쏘쏘’는 그 애의 말습관이다.

“그럼 말해봐 왜 쏘쏘인데?”
“음... 그냥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

그 애는 당황하여 아무말이나 짓거린다.

“내가 그렇게 말해도 쉽게 변하지 않을것 같아서...”

“그걸 왜 네가 판단해? 아니 그렇다고 해도 서로 응원해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연인 아니야? ”

“내가 싸우자고 한 말은 아니잖아...”

“내가 오빠가 한 말로 기분이 상했잖아! ”

아까운 스키야키가 다 끓었다.

그토록 먹고싶던 스키야키였다.

우리는 서로 말이 없어졌다.

그 애는 말 없이 내 앞접시에 고기와 채소를 듬뿍 퍼준다.

나는 그 아까운 스키야키를 꾸역꾸역 먹었다.

지금 당장이라도 나가고싶지만

이 비싼 스키야키는 놔두고 갈 수가 없지.

결국 무슨맛인지도 모르게 건더기를 다 건져먹고서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처럼 따로 걸었다.

서로가 멀어져 어디에서 걸어오고 있는지도 모르게 나는 빨리 걷고

그 애는 나를 놓치지 않을 정도로만 천천히 쫓아온다.

나는 내 걸음걸이와 온 몸짓으로 화가 어느정도 났는지를 표현한다.

그 애는 아주 멀리서 천천히 따라오지만, 내가 타는 지하철은 놓칠 수 없다는 듯

필사적으로 따라 탄다.

Ep. 13 운전은 이별사유가 된다_운전을 해야 어른이지

일년에 한 번 보는 단짝친구 두 명.

술 한잔 거하게 걸치고 중학교 시절처럼 노래방도 가서 옛 노래도 부르다보면

나는 새벽이 근데, 친구들의 핸드폰이 울린다.

남자친구들은 왜 이렇게 집착이 심한가.

내 남자친구처럼 쿨하지 못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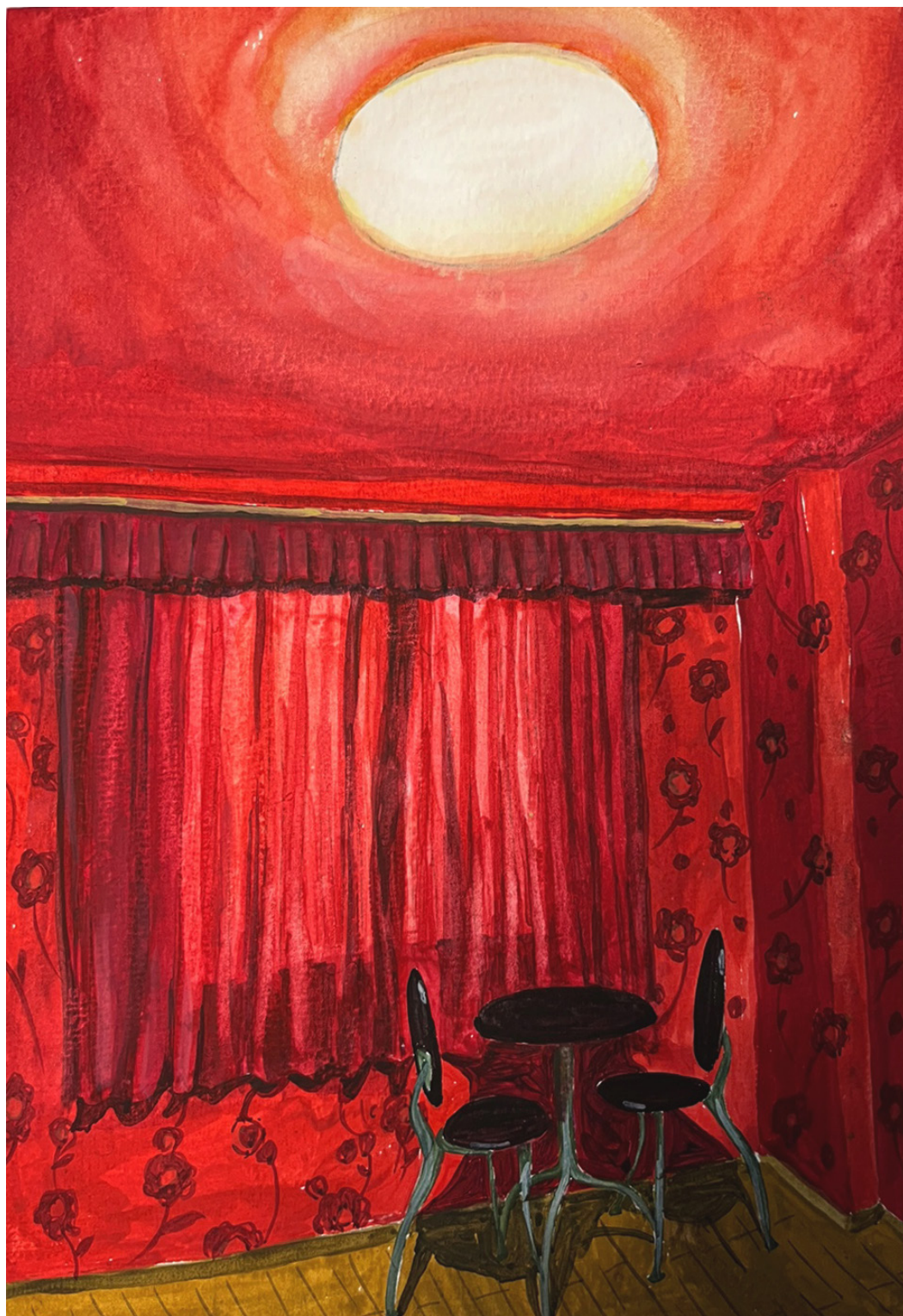
전화 몇 통을 더 받은 끝에 친구들의 남자친구들이 하나 둘씩 차를 타고 등장한다.

직접 와서까지 데려다 집에 넣어놔야 안심이 된다는 거다.

한 명이 먼저 떠나고, 다른 한 명의 남자친구까지 도착하면

“민정씨도 데려다드릴까요? ”

“아뇨~ 전 집이 가까워서, 카카오택시 부르면 되요~”



친구 둘을 보내고 나니, 카카오택시는 안 잡히고.
길가에 택시도 없어 하염없이 기다린다.
좀 걷자. 하고 좀 걷다가 괜히 짜증이 올라와.
카카오택시 블랙을 부른다.

운전을 해야 어른이지.

나는 아직도 내 남자친구가 차로 나를 데릴러 오는 장면이
백마 탄 왕자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드라마같고 비현실적이다.
그 애는 운전이 무슨 안전벨트 없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냥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한
다.
세 번의 지대한 노력 끝에 취득한 귀한 면허증을 장롱에 쳐박아버린 이유는 그것이
었다.
“나 오빠가 운전하는 차 타고 여행가보는게 소원이야”
“노력해볼게”
매년 노력해본다는 그는 도로주행 시험날 이후로 운전대를 잡아본 적이 없다.
그래도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 걷고 지하철도 타고, 기차도 타고 많이도 다녔다.

나는 애랑 걷는게 좋았다.
혼자 걷는 건 싫은데 애랑 걷는 건 좋았다.
뜨거운 날에도, 얼굴이 시려워 눈만 내놓는 날에도 같이 걷는 게 좋았다.
맨날 걷는 거리를 매일 걷는 게 좋았다.
집근처를 걸으며 보이는 고양이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버려진 쓰레기를 탐색하는
게 좋았다.
버스에서 지나가는 것들을 보며 얘기 나누는 것도.
지하철 문 열리기 전 초조한 마음으로 앞을 자리를 스캔하는 것도
버스타고 기차타고 걷고 걸어 힘들게 도착한 숙소에 짐을 내려놓을 때 그 쾌감도.
다 좋았다.

그런데 난 어른이 되고싶었다.

드라마를 보면 멋지게 운전하는 등장인물이 다 이십대인데,
난 언제 어른이 되는것인가.
어른이 되고 싶었던 나는 세 번의 지대한 노력 끝에 운전면허를 취득했고
우리는 그제야 쏘카 끌고 여기저기 다녀보게 되었다.
그 애는 내가 불안해 조수석에 앉아 내내 식은땀을 흘렸다.
사실 운전은 신세계를 열어주었다.
절대 갈 수 없던 곳을 가볼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이 나에게 쾌감을 주었다.

나는 스스로 한 다섯 살 쯤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되면 세 살 차이인 그 애보다 내가 어른이었다.
내가 어른이야. 운전을 해야 어른이야.
이런 자화자찬에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승리감.
그리고 묘한 패배감이 담겨있었다.
나는 이기기도 했고, 또 진 것 같았다.



Ep. 14 헤어짐의 루틴

꽤 여러번 이별을 한 우리에게 2021년 8월의 헤어짐은 심각했다.
9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하였고, 이제 막 10년차에 결혼을 하려고 했고,
그 모든 축적된 시간과 미래에 대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없는일인 셈 처야했기에.
우리 인생에서도 큰 변화구였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했다.

사실 그 동안의 헤어짐 그 기저에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었다.
아무리 냉정한 표정으로 헤어짐은 말하고 이제 끝이라 말해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로 묶어놓은 것 마냥 사실은 절대로 헤어지지 못할거라
고.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새로 살 집을 고르는데도, 내일 계약을 하러 간다는 말에도 그 애는 차가운 표정으로
일관하였고. 나 또한 그에 부응하듯이 이성적이고 빠르게 일처리를 끝냈다.

한 집에서 자는 마지막날 둘은 따로 어디선가 얼큰히 술에 취해 들어왔고, 쓰러져
잠들어 다음날 아침에는 별 말 없이 묵묵히 내 짐을 옮겼다.
나는 그 집에서 내 짐을 들어내는 그 애에게 서운했다.
그 애는 나를 들어내듯 짐을 들어내었고, 그 짐들이 집밖으로 옮겨질 때 그 애에게
내가 하나씩 지워져감을 느꼈다.
내 발로 나가는거라 날카롭게 그 애를 몰아부쳤지만
나는 들어내지듯 아팠다.

짐을 옮겨주고, 정리까지 도와주었다.
이제 정말 헤어질 시간이었다.

그 애는 한번만 안아보자는 무슨 원빈같은 말을 하였다.
그러더니 그 애의 눈시울이 붉어진다.
삼십분 전까지만 하더라도 증오로 가득찼던 내 살기어린 눈빛이
슬픔으로 변했다.

“나 이제와서 생각해보니깐 밋고 서운했던건 다 생각안나. 고마웠던것만 생각이나.
나한테 잘해줘서 너무 고마웠어”

나는 울음이 밀려와 뭇말인지도 모를정도로 멍계진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그 뒤로도 한참을 울었다.
그렇게 우리는 헤어지고 한 동안 나는 많이 아팠다.
정말 ‘충맞은 것 처럼’ 아팠던 것 같다.

이게 사랑의 대가라면 다시는 사랑하고싶지 않다는 웬 오글거리는 대사가 생각날 정도로.

하지만 우리는 진짜 보이지 않는 죄사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또 다시 만나고, 다시 만나고...

아프고 힘들 줄 알면서 계속 만나고 헤어진다.

똑 딱 똑 딱 움직이는 시계바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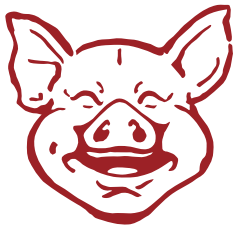
건전지가 다 되어 멈출 때

‘똑’에서 멈출지, ‘딱’에서 멈출지 모르겠다.

우유부단한 인간 두 명의 끝나지 않는 이별 루틴

언젠가 멈추겠지.





피그헤드랩
www.pigheadlab.
com

<달통 : connector> 展 김민우, 차유나 2인전_
2022. 7. 9 - 23



작가들을 위한 메모

“전시명 ‘달통 : Connector’는 간판의 몸통과 벽체를 연결하는 부분으로서 영어로는 Connector, 한국말로로는 달통이라고 한다. 두 작가는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간판의 광고적 기능 너머에 존재하는 사물의 이면을 살펴보고 작업적 수행과정을 통하여 각자가 발견한 간판에 대한 내부적 담론을 외부로 연결시키고자 한다.” - 전시기획서 내 첫 문단

김민우, 차유나 두 작가의 2인전 ‘달통 : Connector’ (이하 전시)는 피그헤드랩의 2022년 터닝포인트를 통한 매칭으로 시작되었다. 터닝포인트 프로그램은 일종의 워크숍 프로그램으로, 해당 과정을 거친 작가들에게 전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해에 타 공간에서 개인전이 잡힌 작가들에게는 굳이 개인전이 아닌 기획부터 직접 해보는 단체전을 제안하고는 한다. 본 전시는 그러한 지점에서 두 명의 작가가 만나 함께 기획서부터 시작하여 차근차근 제작되었다.

예술가로서 과제를 설정하고 관찰과 고민을 시작할 때에는 역시 자신의 주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 지점에서 두 작가가 도시를 선택한 것은 꽤 괜찮

았다고 생각한다. 우선 도시라는 개념은 탄생했을 때부터 수많은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곳이고, 여전히 인류의 끝없는 연구 주제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젊은 예술가가 전시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목표를 정하고 함께 작업을 조율하여야 하는 프로그램 성격 상 본인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했다고 본다. 효율적인 창작, 그리고 행정력. 이 요소들이 현대의 작가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두 작가는 그런 지점에서 확실히 장점을 갖추고 있다.

완성된 전시는 피그헤드랩이라는 공간 자체의 재구성이라 생각한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차유나 작가의 대형 설치 작업은 다양한 간판들을 피그헤드랩 내, 두 개의 벽을 통해 구현한 것인데, 쉽게 말해 다양하고 수많은 간판들을 인쇄하여 벽면을 가득 채운 것이다. 수집과 나열의 방식을 통해 도시의 이미지를 재현하는 것은 기준치 이상의 노력과 정성, 그리고 다양한 장치가 필요로 하는 일이다. 인간에게 완전히 익숙한 이미지들을 재현해내는 것은, 웬만한 노력이 아니라면 부족해 보이기 쉽다. 그런 지점에서 전시장 내 마주보는 양쪽벽을 가득 채움으로써 그것은 상당한 혼잡함과 동시에 현대 도시에서 간판이 내포한 존재감을 어필한다. 소비자의 시선을 끌기 위한 나름의 고민과 철학, 그리고 마케팅 전략으로 가득한 경쟁의 현장들을 재현하는 것이다. 특히 프랜차이즈 업소들의 간판을 부각한 것은 꽤 선방한 것이라 생각한다. 대기업과 자본에 의해 깔끔하고 정교하게 제작된 이 이미지들은 다양한 사회적 이야기를 내포하기 때문에 작가가 의도한 것 이상으로 많은 이야기를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차유나 작가의 경우 이 다음의 순서로 개인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 작업물들을 바탕으로 더욱 확대된 이야기를 선보일 것이라 기대한다.





김민우 작가의 신작들은, 자신의 기존작에서 상당히 변화한 시도의 새로운 작업들을 선보였다. 우선 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다는 생각이 든다. 앞서 차유나 작가가 간판에 관심을 두었다면 김민우 작가는 표지판을 주제로 삼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 보행자 우선 등의 표지판들을 캔버스로 옮겨 그렸다. 여기서 작가는 그가 기존에 해왔던 방식으로, 그의 작업에서 주로 등장하던 짙고 깊은 색상처리와 불안감을 내포하던 인물들의 모습을 표현하여 낯섬을 주는 방식에서, 그 시선을 고스란히 표지판이라는 도상들을 관찰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꿔보았다.

기존 그의 작업 스타일은 꽤나 전통적인 지점을 지향하고 있어서, 사실 그것이 장점인 것도 있겠지만 단점으로는 상당히 고전적인 호불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쉽게 말해 과거 특정 한 장르의 표현법을 답습하는 지점이 있으며, 그것은 상당히 육중하고 무거운 구상의 형태를 지향한다. 허나 전통적인 요리 재료처럼 취향이 맞지 않으면 씹 유쾌한 작업은 아닐 수 있으며, 작업물이나 관객 둘 중 하나는 이방인처럼 낯설기만 할 수 있다. 이것은 근래의 회화에서 자주 보이는 양상이라 생각도 한다.

그런데 이번 신작은 그런 지점에서 어떤 보완적인 과정을 가졌다 볼 수 있는데, 우선 기존 작업들이 가졌던 이야기를 대폭 줄이고자 하였다. 그리고 작가가 가진 감정의 표현을 직접 오브제로 제시하기보다 전체적인 톤의 구축으로 작업하였는데, 이것들이 가지는 메리트는 관람객의 부담감을 많이 줄였다고 것이다. 또 실제로 이 지점은 터닝포인트 프로그램 진행동안 나와 작가가 많이 이야기를 나누던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이번에 같이 전시된 작업끼리도 비교되는 지점인데, 같은 표지판이라도 기존 김민우 작가의 스타일로 그린 것과 이번 전시를 위해 제작된 신작은 분명 비슷해 보일 수 있는 작업들임에도, 무엇인가 기술적인 차이가 느껴질 정도로 방향이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본 전시에 참여한 작업의 개수가 많지 않아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물론 전시 그 자체의 관점으로 본다면 작업들이 구축되고 전시된 지점이 온전히 매끄럽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치의 디테일이나 공간의 구축에 있어 조금 아쉬움은 남아있고 그것들은 작가들이 앞으로 더욱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가령 차유나 작가의 작업은, 지난 터닝포인트 전시와 이번 전시에서도 공통적으로 디테일의 아쉬움을 보이고는 한다. 분명 방대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준비했음에도 그런 소소한 아쉬움들이 자칫 눈 앞에 보이는 것은 분명 고민해봐야 할 문제일 것이다. 김민우 작가 역시 회화를 지속적으로 다루면서 역사적으로 수많은 이들이 시행한 것에 대한 관찰과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의 성격 상 더욱 깊이 다루고자 할 것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일 것이다. 앞으로 작가들에게 더 다양한 기회가 제공된다면 더욱 다양하고 구체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다. 일단 당장 예정된 차유나 작가의 개인 프로젝트에서 보여질 것이라 생각하고, 김민우 작가의 앞날에도 그런 기대를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윤 보 라
8월의 게스트

결국, 보내지 못한 감정적인 내용증명

나의 첫 집. 올해 초 계약을 하게 되었다.

오래된 집은 아니었지만 전에 살던 세입자는 하루종일 집에서 담배만 피웠는지 벽
지에도, 화장실에도 남아있는 담배 냄새는 주인과 함께 퇴거 하지 않았다.

그렇게 인테리어를 시작하였다. 공간에 대한 애착이 컸던 나는 원하는 이미지를 스
크랩하고 또 스케치하여 인테리어를 맡긴 업체에게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 요청하
였다.

디자인도 영업도 혼자, 실장 겸 사장의 역할도 혼자 다 하는 듯한 업체 실장은
적극적이고 예의 바른 이미지로 믿음이 생겼다.

시작은 좋았다. 약 2주가 걸린다는 공사 스케줄은 미세하게 달라지는 듯 했지만
기분 좋은 마무리를 위해 싫은소리 하지 않고 비위를 맞출 수 밖에 없었다.

나의 아주 큰 실수는 잔금을 다 쥐버렸다는 것이다.

계약서의 날짜에 맞추어 모범생처럼 딱딱 돈을 바쳤다. 내 판엔 계약서의 날짜대로
입금을 시키면 상대방도 그렇게 맞추어 공사를 진행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바보’ 아닌가..?

설마했지만 계약 딸 때에는 약속 시간에 미리 와서 미팅을 준비하던 업체 실장은 입
금이 마무리가 되니 남은 인테리어는 더디어졌고,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였다. 계약
된 날짜에서 두달이 지날 동안 이 핑계, 저 핑계로 남은 공정 마무리를 하지 않았다.

배신감, 죄책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나는 감정적인 내용증명을 보냈다.

실장님!

3월부터 만나서 저희 공사 준공기간인 4월11일부터-29일 기간에 저는 계약서안에
계약에 따라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날짜 맞춰 보내 드렸습니다

실장님이 처음부터 시원시원하고 책임감이 있어서 일을 잘 진행해 주시라 믿고 지
금까지 기다리고 진행해왔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진행 되는거였으면 안 했을거예요

물론 중간에 개인적인 일일도 있고, 건강도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일이 힘드셨던 것도

있어서 저희도 함께 걱정했고 여유를 갖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또, 저는 큰 마음먹고 없는 돈을 들어가며 받은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큽니다. 모르시진 않겠죠.

좋게, 좋게 서로 배려해주고 배려받기를 원했구요.
제가 인테리어 공정 처음부터 스케치하고 사진 스크랩해서 보내드렸던 부분 중 싱
크하부, 팬트리 수납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다시 수정해주신다는 것도 두 번이나 실측만 했습니다.
그것도 한 달도 더 전의 일이구요.

그런데 아직도 기성 사이즈가 아니라서 공장에서 찾고 있다는 말을 얘기 하시는건
너무도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처음부터 디자인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다는 것 이라고 볼 수 밖에
없네요.

4월말에 끝나야 할 일들은 지금 7월까지 지체가 된 상황 이구요
계약서에도 지체상금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지체가 되는 것은 계약에 있어
정말 중요한 것 인데 말이죠.
제가 마지막까지 잔금을 드리지 않았다면 또 달라졌을까요?
더 빨리 해주시려고 노력하셨을까요?
앞으로 1년의 as기간동안 정말 as를 받을수 있을까요? ?
처음엔 빠르게 피드백해주시다가
이제는 연락도 잘 안되시는것 같고
여러번 같은 요구를 반복하기도 너무 지치고 힘들고 스트레스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주세요.
이제 인테리어 그만 하고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 7월

[별지]

내용증명

발신인 성함

주소

전화번호

수신인 성함

주소

전화번호

제목: 인테리어 손해배상 및 지체배상금 청구의 건

1. 발신인은 귀하와 사이에 000에 대하여 공사기간 000공사금액 000 원을 내용으로 하는 인테리어 공사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발신인은 귀하와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000계약금 000원을, 000 중도금 000 원을 지급하였고, 000 수신인에게 000 잔금을 지급하였습니다.
3.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 000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4. 귀하는 발신인과 이 사건 계약내용 및 견적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공사하기로 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기간 지체일 000 일을 기간이 후에도 계약된 공사 마무리를 하지 않았고 약속한 디자인과 다른 시공을 수신인이 인정하였음에도 추가 보수 시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5. 이 사건 공사계약은 도급계약으로 발신인은 민법 제 667조에 의거하여 귀하에게 000 까지 미시공, 보수를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6. 만일 귀하가 위 기간까지 시공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신인은 귀하를 상대로 미시공에 지체배상청구, 손해배상청구,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청구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구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자내역 1부. 끝

*내용증명은 따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당사자의 이름, 주소, 주요내용, 날짜, 직인이다.

*내용증명을 작성했다면 원본 1장과 등본2장 총3부를 만들어 우체국을 방문해
발송하면 된다.

*그러나 내용증명 효력은 법적으로는 직접적인 효력이 없지만 내용증명은 증거를 보존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 즉 어떠한 내용에 대해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독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있을시에 바로 증거의 효력을 갖게 된다. 또는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수 있다는 점과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증거 자료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점이다.



지금 이시각 TIME NOW_2022. 08, 네번째

발행인 : 오종원 발행처 : 피그헤드랩 pigheadlab

8월 참여 필진 : 석민정, 오종원, 이안, 이은우, 이채연 / 게스트 : 윤보라

www.pigheadlab.com